

담양군,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17개 목표·55개 세부목표·71개 지표 수정안 확정

담양 그린뉴딜 중기계획 추진배경 설명·의견 논의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17개 목표, 55개 세부목표, 71개 지표 수정안을 확정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수립하고 있는 담양 그린뉴딜 중기계획에 대해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4개 분과(자치기반, 경제기반, 사회기반, 생태기반) 31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6월까지 담양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행정계획, 개발 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 대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완 위원장은 "담양군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SDGs 지표 개발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생태도시 정책 선도 자치단체로서 자리를 선점한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회와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전국

최고의 지속가능 발전 롤 모델을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강화된 생태도시 정책과 농촌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립하고 있는 '담양군 그린뉴딜 중기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희수)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20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신령스러운 빛, 영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역사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널리 알리는 이번 전시에는 '월인석보(보물 제1470-1호)'를 비롯하여 영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250여 점의 문화재가 출품된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고대 영광 문화를 상징하는 수동 출토 새무늬 청동기, '월인석보'를 비롯한 불갑사의 불교문화재, 강항(1567-1618)이 직접 쓴 '간양록(건거록)', 안중식이 그린 '영광풍경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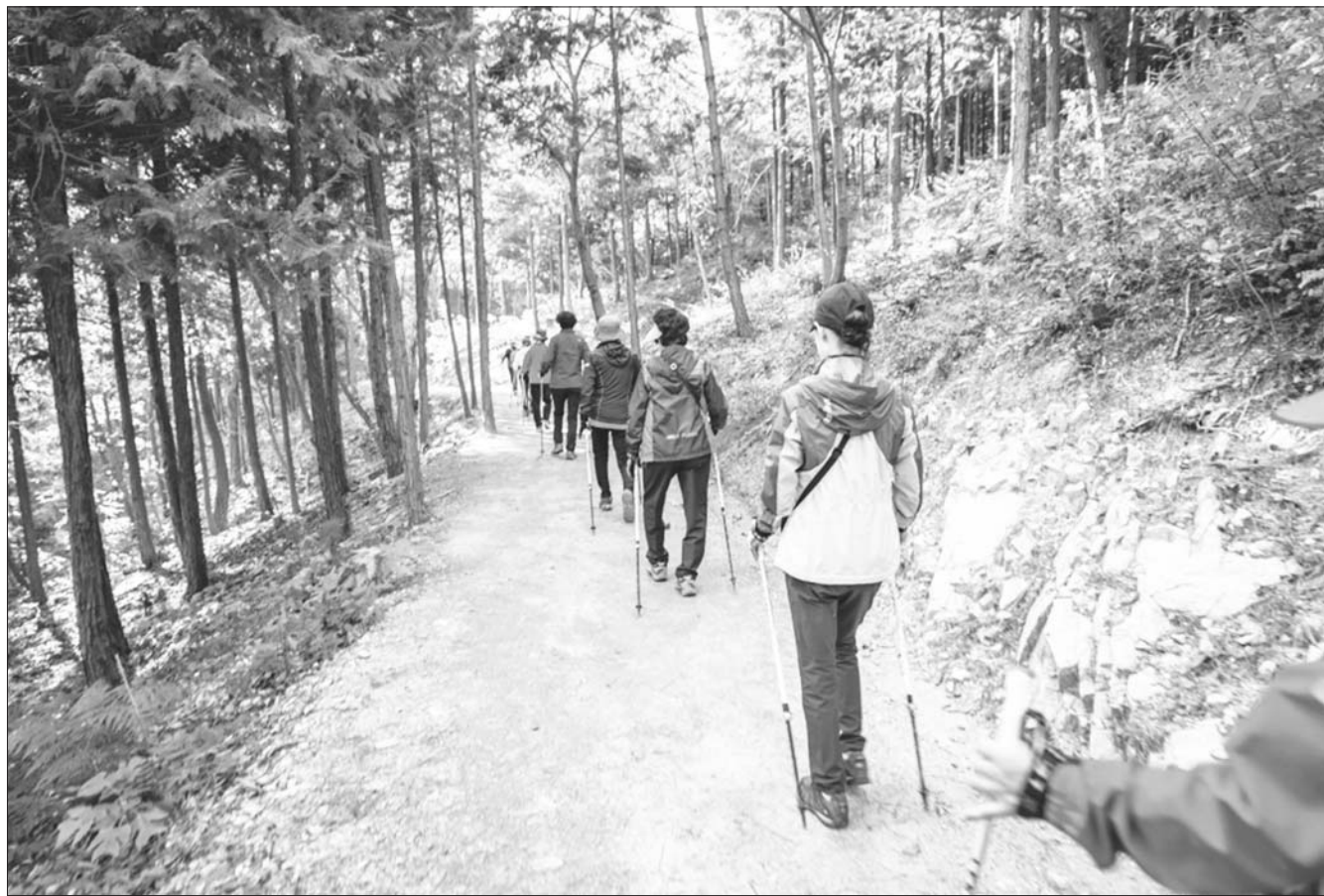
이처럼 영광의 중요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풍성했던 영광의 문화를 살필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영광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시를 개최하여 영광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었다.

1부 '선사·고대의 영광'에서는 영광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2부 '고려시대의 영광'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3부 '조선시대의 영광'에서는 음성, 법성창, 일상생활, 나라와 고을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주제로 나뉘어진다. 4부 '근현대의 영광'에서는 수작으로 꼽히는 안중식의 '영광풍경도'를 중심으로 근현대 영광의 사회문화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가 영광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주=서성택 기자



전남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 비대면 관광지 선정

숲속 둘레길·편백명상원 등 힐링체험 공간을 갖춘 종합 산림복지숲

전남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가을·단풍을 테마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가족단위 위주 테마 관광지, 자연환경이 중심인 관광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3월 개장된 '물무산 행복숲'은 숲의 기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숲길 곳곳에 숲속 둘레길 10km, 맨발 황토

길,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숲 예술원, 하늘공원 등의 힐링 체험 공간을 갖춘 종합 산림복지숲이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 둘레길은 계단과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발바닥에 닿는 황토의 푸근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맨발 황토길,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곳곳에 편백명상원, 소나무숲예술원

등은 가족이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풍성한 안전하고 편안한 비대면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에 축하하며, 여든 살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섯 살 배기 손주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걷는 '3대가 함께 걷는 숲',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 마음을 치유하는 물무산 행복숲'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장성군이 제10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 첫 수상 이래 4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SNS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10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단체 부문 수상

장성군이 제10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 첫 수상 이래 4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여러 SNS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장성군민을 비롯한 다수의 SNS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정책, 관광, 맛집, 농특산물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축제 기간에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와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SNS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유광종 기자 hanjae365@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

의원 14명 위촉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화순군(군수 구충근)은 최근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이끌어갈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14명을 위촉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장은 이수빈(화순제일중학교 3년) 의원, 부의장은 이슬(능주중학교 3년)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교육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마쳤다.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만 18세 미만으로 화순군 거주 아동 또는 화순군 소재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구성해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빈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장은 "여러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회에 참여하는 만큼 아동·청소년의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아동·청소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함께 꿈이 커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창립한 김정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장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은 우리 기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혁명의 선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존매체와 뉴미디어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변화지 않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정론직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시대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데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새롭게 창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전기협'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한 언론상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명과 소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균형을 잡고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불의나 부당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